

스피킹 부문 추가된 차세대 'iBT' 선보여

TOEFL 공금증 해소



대학 입학원서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요즘 토플(www.toefl.org)시험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

는다. 한국에서 유학 왔거나 대학 입학원서 제출 때 미국에 산지가 4년이 채 안 되는 자녀가 있다면 토플시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요긴할 것이다. 토플시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드시 토플점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토플 시험은 SAT의 새로운 포맷에 발맞추듯 2005년 9월부터 iBT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Internet Based Test와 Paper Based Test 두 가지 종류로 실행되고 있고 점차 확산 중에 있다

.....

iBT는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의 Internet-based Testing의 약자로 Speaking 테스트가 추가된 새로운 유형의 차세대 토플(Next Generation TOEFL)을 일컫는 말이다. ETS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선보이는 이유는 최근 아시아계의 학생들이 토플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져 미국 대학들이 말하기 시험을 강조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권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이 바로 토플이다. 토플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평가하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각각 30점 만점으로 총점은 120점이다.

주로 문제들이 학교 주변, 강의실, 기숙사 등에서의 상황이 묘사되고 다양한 미국 역사, 과학, 시사 등에서 독해문제들이 나온다. 특히 생물이나 미국 문학에 관한 질문이 많다. 하지만 비영어권 학생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다양한 과목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토플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한 세계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경우 2년간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취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다.



토플시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드시 토플점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학 왔거나 대학 입학원서 제출 때 미국에 산 지가 4년이 채 안 되는 자녀가 있다면 토플시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요긴할 것이다.

인터넷·시험지 테스트 두 가지 종류 시행 유학생·미 거주 4년 이하일 경우 활용 SAT 영어분야 점수 보충효과 입시 유리

한 것이다.

토플점수에 대한 대학의 입시요강을 보면 토플을 의무화하는 대학과 강하게 권고하는 대학, 두 가지가 있다(한편 하버드 대학은 토플을 요구하지 않는다). 토플점수의 제출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일정기간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토플을 보는 것이 좋다.

토플점수를 대학에 보고함으로써 SAT의 영어영역의 점수를 보충해 주는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지원할 때는 외국인의 토플점수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토플점수가 고득점이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스탠포드는 토플을 강하게 권고하는 대학으로, 토플점수를 제출하고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모든 입학생이 Internet Based Test(iBT): 103-109(지면 시험의 경우 630점에 해당) 이상을 받았다.

듀크 대학도 강하게 권고하는 학교로 최소 점수는 iBT: 100점(지면의 경우 600점에 해당)이다. 반면에 라이스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 캠퍼스는 외국인에게 토플점수를 의무화 하는데 iBT: 100, 지면시험: 600 점 이상을 요구한다.

UC에서 요구하는 최소점수는 캠퍼스마다 차이가 있는데 iBT: 61~100점(지면시험 500~550점) 범위이다. UC버클리는 최소 점수로 iBT: 80점(지면시험 550점)을 요구한다.

미시간 대학은 최소점수로 iBT: 88~100점(지면시험 570~610점)을 요구하는데 외국인의 토플점수 제출을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 면

제 받기 위해서는 영어 사용권 학교를 4년 이상 다녔고 SAT의 영어 독해부분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아바나 샴페인 소재 일리노이 대학은 SAT의 영어 독해부분에서 560점 이상이거나, 영어권 고교를 2년 이상 다닌 경우에 토플점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이 토플점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최소 점수를 밝히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우수한 학부의 경우 적어도 iBT를 80점, 정규 입학을 위해서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우에도 iBT를 61~71점은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BT 경우 시험점수는 시험이 끝나고 업무일 기준 15일 후(예외가 있을 수 있음)에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후 수험생의 주소지와 지정된 기관 및 학교로 우편으로 배송된다.

TOEFL시험 응시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쇄된 성적표 1부 온라인 성적 조회 서비스 공식 성적표 발송 서비스(시험 등록 때 지정한 기관이나 학교로 4곳까지 발송 가능) 성적 확인 비용은 무료이며, 이때부터 성적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CBT와는 달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토플은 7일에 한 번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8일째 되는 날부터 가능함).

토플시험 특징 정리

1. Speaking 영역이 추가되고, Structure 영역이 사라졌다.
2.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의 한 가지 능력만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 외에도, Listening-Speaking, Reading-Listening-Speaking, Reading-Listening-Writing과 같은 통합형 문제가 출제된다.
3. 응시자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컴퓨터상에서 조절되는 CAT(Computer Adaptive Test) 방식이 아닌, 예전의 PBT(Pre-Listening Test) 방식이 아닌, 예전의 PBT(Pre-Listening Test)와 같이 정해진 문제들이 일정한 조합에 따라 출제되는 방식이 채택된다.

4. iBT의 총점은 120점이고 시험시간은 약 4시간이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1년에 30~40회 정도 실시되며, 시험은 전용 컴퓨터 단말기가 마련된 ETS의 Test Center에서 치러지게 된다.
5. iBT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험점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후 15일이면 시험성적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로 수취도 가능하다. 또한, 성적은 총점과 함께 영역별 점수까지도 평가된다.
6. 네 개 시험영역 모두 note taking이 허용되며,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Note taking 용지는 시험이 끝나면 모두 수거된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시니어 어드바이저
<어드미션 마스터즈>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44th
Children's
Music
Competition

남자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래 음악가들의 등용문 ~

어린이 음악경연대회

남자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한국일보 어린이 음악경연대회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합니다.

본보 창간 이듬해부터 매년 열려 온 이 대회는 43년여 동안 많은 우수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주류 음악계에 진출해 주목받는 음악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한인어린이 누구나 출전 가능하며 음악가를 꿈꾸는 한인 2세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도 한미은행의 특별협찬과 함께 한미은행장 상을 마련하여 장학금과 트로피도 전달됩니다.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본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2일 (토) 오전 9:00 ~ 오후 5:00

• 장 소 : LA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참가부문 : 피아노부문, 현악부문 (바이올린, 첼로)
Division I (초등부) : 8세 ~ 11세
Division II (중등부) : 12세 ~ 14세 * 2014년 11월 22일 생일 기준

• 시 상 : 각 부문 대상 - 상금과 트로피
입상 - 트로피, 참가자 - 참가트로피

* 자란에 같은 부문 1위 입상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마감 : 2014년 11월 14일 (금)

• 신청서류 : 1) 본보 소정양식
2)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 신 청 비 : \$70

• 신청문의 : 한국일보 사업국
Tel. (323) 692-2068, 2187
Fax. (323) 692-2137
e-mail : reneroe@koreatimes.com

연주곡

* Requirement Music for The Competition

• Piano	Play any original piano solo (except Concertos) piece or One fast movement from any Piano Sonatas,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seven minutes long.	Division II	Play any original piano solo piece (except Concertos) or One fast movement from any Piano Sonatas,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ten minutes long.	
• Strings (Violin / Cello)	Division I	Play any original Violin/Cello solo piece,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seven minutes long.	Division II	Play any original Violin/Cello solo piece, composed in any musical period. And the length of the piece should be less than ten minutes long.

* The contestant plays only one repertoire at the competition.

• 주최 : 한국일보 • 특별협찬 : Hanmi Bank • 후원 : 안스피아노, LA Violin Shop